



[라이프]
하늘길 정상화 수순
여행업계
다시 '함박웃음'
니



Life

[라이프]
유통업계
반려동물 관련
사업·투자 가속화
L2



백내장수술 3만례... 환자 삶의 질 개선 30년 '개안천사'

(開眼)



이세경의
속깊은 인터뷰

김학철

연수김안과 대표원장

병원 전면을 둘러싼 통창으로 송도 센트럴파크의 전경이 한 눈에 들어왔다. 밝고 쾌적한 공기가 병원 특유의 무거운 긴장감을 한 번에 몰아냈다.

인천 연수구 포스코타워송도 7층 새롭게 문을 연 '연수김안과 노안백내장센터'를 찾았다. 연수김안과는 지난해 병원을 한 층 확장해 노안·백내장 환자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맞춤형 진료실과 검사실을 운영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차별화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해 중장년층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세를 탄 곳이다.

연수김안과는 지난 30년 가까이 경인지역에서 노안·백내장 수술 전문 병원으로 터를 잡아왔다. 1995년 작은 동네 안과로 시작해 1500명이 넘는 대형 병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오직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치를 두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을 '인천 토박이'라고 밝힌 김학철 연수김안과 대표원장은 "환자 한분 한분을 대할 때 실제 내 가족이라면 어떤 진료를 권할지, 어떻게 수술할지를 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까지 백내장 수술 2만6000건을 시행했고, 그 가운데 노안·백내장 수술만 8500례 이상을 집도한 베테랑 의사다.

- 노안·백내장에 주력하게 된 이유가 있다.

"스마트폰 등 전자 기기의 사용 증가와 환경 변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백내장 발병이 빨라지는 추세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40~50대에 발병될 경우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노안·백내장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 노안백내장센터의 차별점은.

"맞춤형 진료를 위한 전용공간이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첨단 의료기기는 물론 실력있는 의료진을 확보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였다. 특히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술실을 오픈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술실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과정을 수술 대기실 모니터를 통해 라이브로 볼 수 있다."

김 원장은 2007년 1월 경인지역에서 처음 노안·백내장 수술을 시작했다. 미국 알콘사가 개발한 '레스토'라는 새로운 렌즈(인공수정체)가 처음 등장했던 시기였다. 이 렌즈를 삽입하면 노안과 백내장을 한꺼번에 교정할 수 있어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후 렌즈는 끝없이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 50여가지의 렌즈가 출시된 상태다.

- 노안·백내장 수술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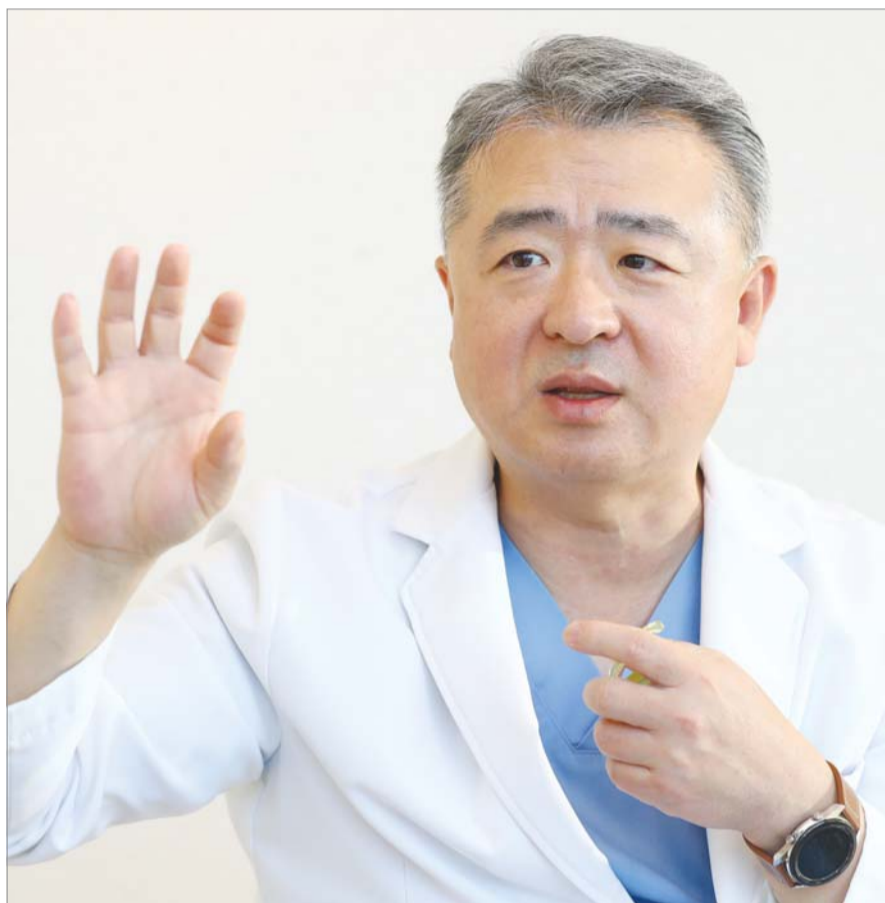
"수정체의 혼탁 정도를 분류해 '어느 수준 이상이면 수술을 해야 한다'와 같이 정해놓은 기준은 없다. 나이에 상관없이 스스로가 노안이나 백내장 등으로 일상에 불편을 느끼고, 안경으로도 교정이 잘 되지 않을 때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너무 오래 방치할 경우 수술이 어렵고 만족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노안이 시작될 때부터 정기 검진을 통해 백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은 뭐가.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하는 수술이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데, 이럴 경우 초점이 원거리나 근거리로 고정돼 안경이나 돋보기를 보조 수단으로 착용해야 한다.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면 먼 거리,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까지 모두 잘 볼 수 있고, 한 번 삽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 평생 시력 교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렌즈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이 때문에 각



김학철 연수김안과의원 대표원장이 지난달 21일 인천 연수구 연수김안과의원에서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30년간 2만6000건 수술 집도한 백내장 베테랑 빨라진 발병시기, 노안 시작 때 백내장 여부 확인해야 보험금 기준 까다로워져... 과잉진료 병원에 책임 있어 정교함 요하는 까다로운 수술, 의사 숙련도 중요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다양한 후원활동도

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눈 상태와 일상, 직업적인 특성을 고려해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단초점과 2중 초점 렌즈를 사용했는데 2중 초점 렌즈는 근거리 원거리를 모두 잡았지만 중간거리는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 독일 칼자이스에서 개발한 3중초점 인공수정체는 중간 거리에서도 상이 맺히도록 업그레이드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과는 현재 '빙하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4월 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수술 환자가 뜰 줄만 타이다.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지자 보상금 지급이 보류된 영향이 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수술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연 평균 증가율은 7.9%에 달한다.

- 왜 이런 상황이 온건가.

"구분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일부 병원들이 불법적으로 실손

보험이 있는 환자들을 유인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유도해 과잉진료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수술을 진행하면서 수술 이후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 타격은 있다.

"지난해 4월 이후 수술 건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한쪽 눈에만 400만~500만원이 드는 고가의 수술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의 도움없이 대부분 수술을 결정하기 어렵다."

-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나.

"과잉 진료를 주도하고 문제를 만든 병원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부 병원의 잘못으로 그동안 정직하게 수술을 해 온 많은 병원들과, 노안·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들 피해 입을까 우려된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백내장 수술 1만례 달성에 이어 5년만인 2019년 백내장 수술 2만례를 달성했다. 김 원장은 노안·백내장 수술 병원을 선택할 때 집

도의의 숙련도와 병원을 거쳐간 환자들의 만족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병원 선택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백내장 수술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수술이다. 의사들은 대부분 1만례를 고비로 보는데, 1만례는 한달에 100건의 수술을 10년 해야 쌓을 수 있는 경험치다. 노안·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까다롭다. 최대한 작게 절개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집도의의 높은 숙련도와 정교한 술기가 필요하다. 노하우를 체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의사들에게 수술을 받다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 연수김안과가 노안·백내장 수술로 유명해진 이유는 뭐라고 보나.

"인천과 같은 지역사회는 광고가 아닌 입소문으로 움직인다. 먼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 소문이 나면서 센터를 찾는 환자 숫자가 빠르게 늘었다. 수술에 실패하지 않고 환자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그 병원이 가진 실력이고 성패를 좌우하는 키포인트다."

김 원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후원과 나눔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료를 시작으로 사회 약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스포츠활동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2012년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대회 의료봉사를 계기로, 인천시지부의 수석부회장을 맡아 인천스페셜올림픽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5000만원 이상 후원해 왔다.

- 최근 모교인 중앙대광명병원에 발전기금 1억원을 후원했는데.

"모교 발전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지역사회 의료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 중앙대광명병원이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병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 나눔 활동에 열심인 이유는.

"병원을 운영하며 지역 환자들에 많은 것을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자는 '밝은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개원 초부터 진행한 것도 그때문이다. 도움의 크고 작음을 생각하기보다 이 사회를 위해 '지금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갈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중국서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 흥
쳐보기 기승
▲문체부, 전국 272개 공립박물관 평가
인중...140곳 우수 /사진 뉴시스

▲문화재청, 민속 문화 이해 시민강좌
운영
▲이대호 시청률 잡았다...SBS, WBC
한국·중국전도 1위



▲'레스터전 환상골' 손흥민, 런던풋볼
어워드 '올해의 골'
▲한국도로공사, 페퍼저축은행 잡고 붐
배구 진출 티켓 확보하나 /사진 뉴시스